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3·1 운동 재현행사.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전북 독립영웅들 판소리로 만난다

3·1운동 100주년 맞아

22일 국립무형유산원서 공연

3·1 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전북지역 독립영웅의 삶을 조명하는 판소리공연이 선보인다.

지난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판소리공연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판소리공연은 시와 국가보훈처 전북동부보훈지청이 주최하고 광복회 전북도지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판소리공연에는 100년 전 조국을 지키고자 일어섰던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전주의 3·1운

동을 재조명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특히 공연이 준비되는 과정에는 많은 시민들의 후원이 모여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복창 극작가와 김용택·안도현 시인, 신귀백 작가, 김병용 소설가 등 전북을 대표하는 문인들은 재능을 기부하는 마음으로 사설을 작성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인 안숙선·왕기석·방수미·박애리·이지람 명창이 작창과 공연에 참여하기도 한다. 여러 손길이 모아진 공연은 '우리의 소리로 100년의 합성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공연에서는 ▲능률한 기상의 의병장 이석용(임실)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된 백용성(장수) ▲3·1운동의 정신적 지주인 문용기(익

산) ▲자유를 꿈꾼 독립운동가 백정기(부안) ▲전주 만세운동의 주역인 신흥·기전학교 학생 등 전북출신 애국지사들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이와 함께, 이날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창작 판소리 외에도 국립민속국악원의 해원살풀이와 풍물놀이패의 풍물 공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합합댄스와 만세 퍼포먼스 등 부대행사로 다채로운 공연도 진행된다.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은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열과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고장의 숨은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호철 기자

'세계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의 것'

리처드 파워스 장편소설 '오버스토리' 번역·출간

"지금은 밤나무의 시절이다. 사람들이 커다란 나무 몸통에 물을 던진다. 성스러운 환호 속에서 밤이 그들 주위로 떨어진다. 이번 일요일에 조지아부터 메인까지 수많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위쪽 콩코드에서는 소리가 참여한다. 그는 지각을 가진 존재에게 물을 던지는 듯한 기분이다. 자신보다는 좀 둔하지만, 어쨌든 친척 같다. 오래된 나무들은 우리의 부모이고, 어쩌면 우리의 부모의 부모일 것이다. 자연의 비밀을 배우려 한다면 더 많은 인류애를 키워야 할 것이다"

미국 작가 리처드 파워스(62)의 장편소설 '오버스토리'가 번역·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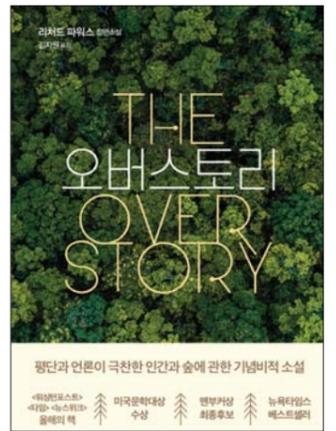
2018년 맨부커상 최종후보작이다. 프랑스에서 출간된 미국문학에 수여되는 미국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제목은 숲 상층부의 전체적인 생김새를 뜻한다.

인간과 숲에 관한 소설이다. 남북전쟁 전 뉴욕부터 20세기 말 태평양 북서부의 목재 전쟁과 이후에 이르는 이야기다.

비극적인 운명의 밤나무 초상사진 백년치를 물려받은 화가가 있다. 이민자 아버지로부터 뜻모를 아라한의 족자와 나무가 세공된 반지를 물려받은 엔지니어 딸이 있다. 미공군 한 명은 격추당했다가 반인나무 위로 떨어져서 살아남는다. 파타공인 대학생은 감전되어 죽었다가 공기와 빛의 존재들에 의해 되살아난다.

시인 극장에서 '백백스'를 공연하며 움직이는 숲의 예언을 재현하기 전까지는 나무에는 관심도 없던 변호사와 속기사가 있다. 나무에서 떨어져 반신불수가 되었을지라도 컴퓨터 속 세계에서 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학생이 있다. 청각과 언어 장애를 지닌 과학자는 나무들이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탄생수 단종



나무와 운명을 같이한다고 믿던 아이는 인간의 맹점에 눈을 뜨며 영약하게 자라난다.

소설은 각기 한 그루의 나무로 상징되는 아홉 인물의 개별적인 삶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무의 부름을 받는다. 숲이 그러하듯, 이들의 삶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서로 연결되며 또 다른 거대한 이야기 숲을 이룬다.

"그녀는 그에게 말한다. 모든 것은 다른 것들에 의존한다. 오래된 숲을 필요로 하는 들쥐 종이 있다. 이 들쥐들은 썩은 통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을 먹고 포자를 다른 곳에 배설한다. 썩은 통나무가 없으면 버섯도 없다. 버섯이 없으면 들쥐도 없다. 들쥐가 없으면 포자도 퍼지지 않는다. 포자가 퍼지지 않으면 새로운 나무도 없다"

"여기는 나무가 끼어 사는 우리 세계가 아니다. 나무의 세계에 인간이 막 도착한 것이다" /뉴시스

전주국제영화제 경쟁·비경쟁 부문 공모에 1173편 출품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경쟁 및 비경쟁 부문 공모에 총 1173편의 작품이 출품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과 비경쟁 부문의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제작한 지역 공모로 나눠 진행됐다.

부문별로 보면 한국경쟁 부문은 105편이, 한국단편경쟁 부문은 지난해(871편)보다 155편이 증가한 1026편이 응모했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한 한국경쟁은 극영화 70편, 다큐멘터리 25편, 극다큐 6편, 실험영화 4편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공모했다.

지역영화 부문에서는 전북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의 재학생 작품 또는 50% 이상 전북지역에서 로케이션을 진행한 작품을 대상으로 공모를 전개한 결과 장편 6편, 단편 13편이 출품됐다.

출품 공모가 마감됨에 따라 조직위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경 각 부문 분선 진

출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선작은 오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다.

김영진 수석 프로그래머는 "작년에 비해 올해는 대체적으로 영화들의 수준이 높고 고품질"이라며 "특히 지난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다수의 작품들이 눈에 띄고 작품 경향도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가치를 추구하는 영화들도 있지만 좀 더 미니멀하고 사적인 필터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경향이 많아진 점을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피아니스트 머레이 페라이어 3월 내한공연, 없던일로

미국 피아니스트 머레이 페라이어(72)의 내한공연이 무산됐다.

공연기획사 크레디아에 따르면, 페라이어는 건강상의 이유로 3월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를 취소했다. 올 봄 베이징, 상하이, 서울, 도쿄, 미토 등을 순회하는 아시아투어를 예정했었다.

페라이어의 매니지먼트사 IMG아티스트는 e-메일에서 "페라이어는 이번 한국 리사이틀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아시아 투어가 연기돼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예매자에게는 지난 14일부터 개별 통보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